

광주 어등산, 16개 사찰 있던 불교성지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어등산 절터와 불교문화...' 발간



광주전남불교신도회는 '어등산 절터와 불교문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은 어등산 서봉리에 있는 서봉사 절터를 마을주민 김수상(75)씨가 가리키고 있다.

광주지역 도심이전과 함께 새로운 관광 단지 조성을 앞둔 광주 어등산 일대가 16개의 사찰이 존재했던 불교성지로 밝혀졌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는 지난 1월부터 5개월간의 연구로, 광주 광산구 어등산 일대에 거대한 사찰군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선암사지를 비롯한 16개 절터와 불교전설, 불교지명에 대한 '어등산 절터와 불교문화 연구보고서(책임연구원 이종표, 류복현, 정의행)'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선암동 3층 석탑이 있는 선암사지를 비롯해, 여둔사지, 천

운사지, 보광사지, 운수사지, 서봉사지 등 마을이름과 사찰이름이 같이 있는 절터를 확인하고, 절터로 추정되는 박호리 절터, 등림리 절터, 장수리 절터에 대한 답사내용과 스님, 마을주민들의 관련 증언을 발표했다.

또한 어등산 일대의 불교신앙과 불교지명, 불교문화와 옛 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었다.

조사를 담당한 류복현(향토사가)씨는 "어등산의 불교유적 가운데 현존하는 전통 사찰은 천운사, 보광사, 정광사, 범륜사가 있지만 대부분 외지로 모두 옮겨지거나 없어졌다"며 "어등산을 떠난 절터에는 주춧돌이나 석축 그리고 노거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그나마 최근 어등산 개발로 흔적마저 없어지고 있어 아쉬운 실정이다"라고 했다.

정의행(시민의 소리 스토리텔링사업단 기획단장)씨도 "어등산은 무등산과 더불어 광주의 명산이다. 어등산에는 영둔사, 선암사터의 석탑이 남아 있어, 일찍이 불교문화의 산실이었다"라고 밝혔다.

어등산은 무등산과 더불어 광주를 대표

하는 산으로, 그 주변에 황룡강과 극락강이 흐르고 있어, 선사시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특히 어등산에는 많은 사찰과 절터, 유무형의 문화재들이 남아있는 곳으로 지금도 마을 이름이 절골 또는 사동(寺洞)으로 불리고 있다.

현재 어등산 일대는 오는 2015년까지 총 사업비 3400억원을 들여 호법과 콘도, 골프장, 빛과 예술센터, 빛의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보고서를 낸 지용현 신도회장은 "어등산의 규모 있는 절골이 있었던 것을 보면, 어등산은 그 자체가 '불교 덩어리'라며 "지금 어등산은 찢기고 헤어져 유서 깊은 문화적 원경들이 사라지고 있어,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의 문화원형을 지키고 나아가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고 발간 의미를 말했다. 지용현 회장은 이어 "광주는 유래 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콘텐츠가 부족하다. 어등산 일대를 잘 정리하여 광주를 대표할 만한 문화 콘텐츠를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국악 배우니, 한국 더 좋아져"



해프는다문화복지센터는 6월 23일 50여 명의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한국 및 나라의 전통문화 공연을 펼쳤다.

광주지역 불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 전통문화공연을 펼쳐 큰 관심을 모았다.

광주지역 불교 다문화단체인 사단법인 해프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대표 정선스님, 대광사 주지)는 지난 6월 23일 아시아 문화마루에서 50여 명의 다문화가족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과 각 나라의 전통문화공연을 펼쳤다.

이날 다문화가족 회원들은 60분에 걸쳐 태극 전통노래와 춤, 태권무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서 진행하는 아시아 문화체험공간인 '아시아, 10cm 더' 로, 아

시아국가 출신 이주민과 외국인들이 만들어가는 토요 상설 공연이다.

행사를 준비한 총괄국장 동원 스님은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면서 생활을 하니, 훨씬 더 빠르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의 화관무를 선보인 통과(태국, 39)씨는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었지만, 배우면서 한국문화의 오랜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는 광주지역 많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다문화단체들이 신청하여 4곳이 선정되었는데, 그 중 유일하게 불교단체로 선정되어 이날 공연을 선보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골 잔치 한마당 6월 28일 생태공원서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함께 화합을 다지는 장이 마련됐다. 전북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와 선운골 공동체는 6월 28일 선운사 유스호스텔 앞 생태공원에서 '선운골 공동체 화합의 잔치 한마당'을 열었다.

이날 한마당 잔치에는 선운사 산내암자인 도솔암, 석상암, 동운암, 승가대학원의 스님들과 선운사 인근의 삼내마을과 석상마을, 상가 변영회와 협의회,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농협, 우체국, 파출소 직원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선운골 공동체의 공감대 형성과 일체감 조성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잔치 한마당은 족구, 제기차기, 윷놀이, 고리던지기, 농구공 던지기, 림보, 2인3각, 과자따먹기 등 초등학교 운동회를 연상하는 게임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마을 주민들과 상가 주민들이 푸짐한 음식과 함께 정담을 나누기도 하고, 친목과 화합을 다지며 승속이 함께 하는 공동체 정신아래 상호 발전방향도 함께 모색했다.

법만 스님은 "살기 좋고 편안한 선운골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같은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구례 화엄사 스님들 통일쌀 모내기

화엄사 스님 20여 명과 기아자동차, 구례농민회 공동으로 통일쌀 재배 시작

스님과 노동자, 농민들이 힘을 모아 통일쌀 재배를 시작했다. 전남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지난 6월 22일 전남 구례군 마산면 일대 농토에서 구례농민회(회장 김중욱)와 기아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배재정)과 함께 '통일쌀 모내기' 행사의 모내기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엄사 우범 스님을 비롯해 스님 20여 명과 기아자동차 노조원 100여 명, 구례농민회, 구례여성농민회 회원 등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300여 평의 농지에서 직접 모심기 행사를 벌였다.

2007년부터 시작한 통일쌀 모내기는 화엄사에서 통일쌀 재배를 위한 농토 2만 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스님과 노동자, 농민들이 공동으로 '통일경작단'을 조직해 공동으로 경작 하고있다. 수확한 쌀 이익금은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에게 보내고 있다.

화엄사는 지난 2007년 5천만원, 2008년 3천만원 상당의 통일쌀을 농민회와 공동으로 조계종 민족공동체지원본부를 통



지난 6월 22일 전남 구례군 마산면 일대에서 구례농민회와 기아자동차노동조합 회원 등 200여 명이 '통일쌀 모내기' 행사의 모내기를 진행했다.

해 지원에 왔다. 2011년부터는 남북관계의 단절로 직접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범 스님은 "스님들이 지역의 농민들과 노동자들과 힘을 모아 공동경작을 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소중한 쌀이 북한의 어려운 이

웃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통일경작단은 이날 모내기 행사에 이어 가을에 벼베기 행사, 통일쌀을 화엄사 동안에 공양올리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 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장사, 희묵 대사 추모 다례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임진왜란 당시 활약했던 내장사 의승병들과 유생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추모다례제가 6월 23일 정읍 내장사(주지 진서)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김생기 정읍시장, 송훈록 선생 후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행사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으로 이안해 큰 공을 세운 희묵 대사의 추모다례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지선 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위해 일어난 의승군을 거론

할 때는 물론이고 조선왕조실록의 수호와 보존을 이야기 할 때 희묵 스님의 행적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희묵 스님의 역할과 의미를 선양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를 대중에게 알린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법어에서 "희묵 스님은 오늘날의 내장사의 면모를 갖추게 하신분이다"며 "앞으로 희묵 대사와 충의사의 호국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참좋은우리절, 신도교육기관 인가

전주 참좋은우리절 불교대학(학장 회일)이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됐다.

6월 18일자로 정식 인가를 받은 참좋은우리절 불교대학은 "학습하는 불자, 실천하는 불자"를 모토로 지난 2006년 6개월 과정인 기초반으로 문을 연후 그동안 28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회일 스님은 "이번 인가를 계기로 지식으로써의 불법이 아니라 생활 속의 불법

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불자를 육성하는데 더욱 힘을 것이다"며 지역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 전북도내에는 화엄불교대학, 전북불교대학, 이라불교대학, 남원불교대학, 무주 불교대학에 이어 6번째로 불교대학이 문을 열었다. 참좋은우리절 불교대학에서는 1년 정규과정과 별도로 오는 9월 5일부터 원각경강설과 위빠사나, 사다수행 특별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들 출가익식 지원
신부들은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띠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